

ISSUE & FOCUS

Newsletter 2018-12

2018년 회고와 한선재단의 과제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2,000원으로 한선재단 '문자응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사랑하는 한반도선진화재단 가족 여러분,
유난히 어둡고 힘들었던 무술(戊戌)년도 이제 그 끝이 보입니다.
올 한 해 다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존폐의 기로에까지 서 있던 한선재단이 회생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 분 한 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은 미증유의 격동기였던 2017년 못지않게 파란만장했습니다.
안보와 외교는 물론이고, 경제, 사법, 기초질서, 교육, 복지, 노동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걸쳐 예전과는 차원과 강도가 다른 내우외환(內憂外患)으로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력에 걸맞은 글로벌 책임감과 후대까지 생각하는 백년대계는 희석되고,
단힌 민족주의와 눈앞만 챙기는 근시안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자율과 다양성, 법치와 자기 책임 원칙이 흔들리는 틈새로

집단사고와 획일 규제, 편 가르기와 세몰이,
‘폐治’와 정부 만능주의가 횡행하면서 갈등과 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1년’이 아니라, ‘거꾸로 간 1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올 기해(己亥)년엔 지금보다 더 심각한 난국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누란지세(累卵之勢)가 이어지면 대한민국은
역사의 분수령을 훌쩍 지나 되돌리기 힘든 내리막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한선재단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냉정히 반추해보면, 올 한해 우리 재단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대부분 영역에서 나라의 발전이 지체되거나 심지어 퇴행하고 있는데도
올바른 방향이나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정책 연구와 공론이 오랜 울림과 큰 변화를 선도하기에는
설득력이나 시의성이 뒤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콘텐츠는 괜찮았지만, 전달체계나 마케팅이 미숙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미숙한 제가 이사장을 맡고 나서 재단의 내공이 더 취약해지고,
재단 명성에 누(累)까지 끼친 것 같아서 부끄럽습니다.

새해부터는 반전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그러자면 2006년 한선재단을 창업할 때 초심으로 되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9월부터 재단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중책을 기꺼이 맡아주신 박수영 대표와 윤창현 정책위의장께서 앞장서
그 변화를 이끌고 계십니다.

재단 콘텐츠의 공유와 확산체계를 모바일 중심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회원끼리 ‘단톡방’을 개설해 양방향 소통기반을 구축하는 중입니다.
청년세대를 영입해 최적의 ‘노-장-청’ 포트폴리오 구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책위원회 산하에 다양한 연구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주례 목요세미나에는 발제자 외에 지정토론자도 초빙하고 있습니다.

아직 요원한 재정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빈자일등(貧者一燈) 방식으로 풀뿌리 회원도 늘려나가는 캠페인을 벌여서
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위공(爲公) 박세일 선생께서 떠나신 빈자리가 크지만,
지금의 위기를 오히려 도약의 디딤돌로 승화시켜야 하겠습니다.
램프는 어둠 때문에, 나침반은 안개 때문에 발명되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시련으로 한선재단이 이대로 좌초하고 말지,
아니면 지금의 고난이 ‘위장된 축복’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는
오롯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먼 훗날 역사가 “그때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온 힘을 다합시다.
2019년 한선재단의 거룩한 여정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신의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선재단을 향한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담은 메시지를
수신번호 **#7079-4545**로 문자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